

망덕포구 절경 만끽...광양 '섬진강 별빛 스카이' 개장

공중하강 체험시설 내일 개장식
활강 4라인, 회수 1라인 등 구성
19일까지 개장 기념 특별이벤트
무료체험단·개장할인·SNS 후기

광양시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10일 개장한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망덕포구 모노레일 탑승지 앞마당에서 개장식을 열고 11일부터 19일까지 특별이벤트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98m 규모의 짚와이어로, 시설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명됐다. 섬진강에서 바라보는 찬란한 별빛 하늘의 감성과 낭만을 담았다는 평가다.

짚와이어는 활강 4라인, 회수 1라인 등 총 5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매표소와 짚와이어 출발점을 오가는 12인승 모노레일은 깎아지른 듯한 280m 구간을 오르내리며 섬진강과 망덕포구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로, 모노레일 탑승은 오후 5시30분 마감된다.

짚와이어 이용료는 일반(19세 이상) 2만5000원, 19세 미만 및 군인 2만원, 13세 이하는 1만원이다. 20인 이상 단체는 정상가에서 10% 할인되고 광양시민 및 명예시민은 대상별 정가에서 각각 50% 감면된다.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등은 30% 감면된다.

모노레일은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이며 광양시민과 명예시민은 50%, 장애인 유공자, 수급자 등은 30% 각각 감면된다.

광양시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을 특별이벤트 기간으로 정하고 무료 체험단, 개장할인, SNS 탑승 후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펼친다.

무료체험단은 총 110명 규모로 지난 5일 마감한 사전 접수에서 5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 날짜별 체험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무료체험단에 선정되지 못했다면 개장 할인이벤트를 노력할만하다. 특별이벤트 기간에는 탑승 가능 체중(45~105kg)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1만원으로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광양 짚와이어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이용한 후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



광양시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망덕포구 공중하강 체험시설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10일 개장한다. **광양시 제공**

을 증정하는 탑승 후기 SNS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탑승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양관광'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인근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 방문을 인증하며 된다. 현장에 설치된 배너 또는 광양 문화관광홈페이지 팝업창의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SNS 후기 및 정병옥 가옥 방문 사진 등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평가 기준에 따라 1등, 2등, 3등 각 1명에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각각 증정하고, 추첨으로 50명에게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섬진강 별빛 스카이가 본격 운영되면 망덕포구, 배알도 수변공원, 배알도 섬 정원 등을 모노레일, 해상보도교 등과 함께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면서 액티비티하고 아름다운 해상로드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알도 섬 정원과 별해는다리, 해맞이다리 등 아름다운 야간경관과 운동주의 유교를 보존한 정병옥 가옥, 운동주 시 정원, 광양김시식지 등과 함께 인문과 야경, 액티비티를 두루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성군, 오늘부터 신입생 모집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별교분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 5회(월~금)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문화 활동, 체험 및 동아리 활동, 석식 제공, 귀가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보성군내 중학교 1학년부 터 3학년 학생으로, 2개 반 40명을 모집한다. 신청 인원이 초과하면 대기자로 관리한다.

아카데미는 학습지원(학습 튜터링 및 학습상담), 문화 활동(음악·미술·체육), 체험 및 동아리 활동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별교분소(061-858-0923)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과 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탐방' 성탄절 특별프로그램 운영

순천시는 겨울맞이 새 단장과 함께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기독교역사박물관에서 성탄절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순천 근대문화유산과 기독교역사박물관의 특성을 주제로 △순천 근대문화유산 탐방 안내도 만들기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만들기 △산타복 체험 이벤트 및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총 2회로 진행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사전 전화 접수(061-749-4532·4533)로 가능하며 무료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색칠하기가 마련돼 있으며 탐방 안내도 및 식물도감 만들기는 현장에서 요청 시 체험이 가능하다.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박물관 로비에는 대형 트리도 설치돼 성탄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탄절을 맞이해 110년 전 최초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던 순천 선교부의 근대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특별한 체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만 농주 갯벌 칠면초 식생 복원 칠면초 90kg·통통마디 씨앗 살포

순천시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내 순천만 농주 갯벌에 칠면초 식생 복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순천만 칠면초 식생 복원사업은 순천 제4지역 로타리클럽의 제안으로 로타리클럽 국제기금을 통해 90kg의 칠면초와 통통마디 씨앗을 살포해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전날 순천만 농주 갯벌에서 진행된 복원사업 첫날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순천 제4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순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염생식물의 생태적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칠면초 씨앗을 살포하며 순천만 갯벌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만이 블루카본 저장소로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갯벌 토양 안정화 및 침식 방지도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와 로타리클럽의 협력은 지역사회가 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중앙로타리클럽 관계자는 "시와 협력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파종을 통해 갯벌 식생복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노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성군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요가 등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노년 삶의 질 개선

보성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행복마을 만들기'는 생활터를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노인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

했다. 11개 읍면, 21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요가, 박수 체조, 밴드 운동 등의 신체활동과 함께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영양교육, 치매 예방 교육, 마음 건강 원에 활동 등을 진행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고흥군,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 전국적 관심

2기 참가 신청 540가구 몰려
경쟁률 45:1... 2호 조성 검토

고흥군의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고흥군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인 고흥스태이 2기의 참여자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주 동안 모집한 결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540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45: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흥스태이는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 휴양, 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체험과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생활인구 유지와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스태이는 도심 속 유휴시설로 방치된 구 한전사택을 매입해 내부 공간 리모델링과 외부 환경정비를 거쳐 지난 7월 준공식을 가졌으며 8월부터 12월까지 1기 12세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달 유튜브에 소개된 고흥스태이 영상은 조회수 170만회를 돌파하며 참가 신청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고흥 홍보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기 참가자는 연령, 가구당 참여 인원 등 정량평가와 지원동기, 홍보 계획 등 정성평가로 나눠 2단계에 걸친 철저한 심사를 통해 12세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또 2기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는 나만의 텃밭 체험, 고흥 인물 탐방, 고흥유량단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고흥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고흥스태이 1호점을 시작으로 내년 '고흥 속 우주인 마을'을 테마로 한 고흥스태이 2호 조성을 검토 중이다.

공명민 고흥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들이 고흥에서 텃밭을 내디딜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흥스태이를 운영하게 됐다"며 "2030년 고흥인구 10만 달성의 마중물이 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QR code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Jeonnam Ilbo.